

장수 대적골서 청동제 소형 통종 출토

후백제~조선시대의 것으로 보여... 전북서 처음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장수군(군수 장영수)이 추진하고 전주문화유산연구원(원장 유철)이 조사한 장수 대적골 유적에서 전북지역에서는 처음으로 후백제~조선시대 것으로 보이는 종합 제철유적이 다수 확인되었다.

장수군 장계면 명덕리 산154-1번지 일원의 계곡부 평탄면을 따라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 이 제철유적은 정상부에서부터 5개 구역(가~마)으로 구분했다.

이번 발굴조사는 해당 유적의 3차 발굴조사로, 전체를 가~마로 5구역으로 나뉘었을 때 '나~마' 구역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나' 구역 후백제 문화층에서는 온전한 형태의 청동제 소형 통종이 출토되었다. 또한, 통종이 나온 '나' 구역에서는 숯가마와 철 생산과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통일신라~조선시대 건물지도 중첩되어 확인됐다.

건물지 주변에서는 삼국~고려 시대 토기, 청자 조각, 기와 등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에서 후백제 기와가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청동제 통종(銅鐘)은 높이 26.5cm, 지름 10~15.6cm크기로, 비록 작지만 일반적인 범종(梵鐘)의 형태를 온전히 갖췄다.

매달 수 있는 용뉴부분에 1개체의 용과 음룡이 조각되어 있으며, 용뉴의 바닥자 종의 천정부부인 천관의 가장자리에는 입상화문(立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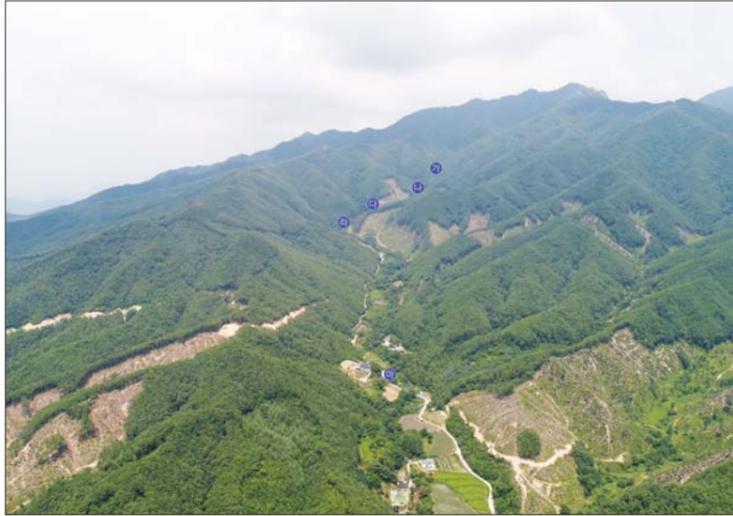
花文)이 둘러져 있다.

종의 가장 상부와 하부인 상대와 하대에는 꽃가지무늬(당초문양, 唐草紋樣)가 둘러져 있고 상대 아래에는 4개의 연곽(상대 밑에 붙어 있는 네모난 테)이 있는데 각각의 연곽 안에는 9개의 연뢰(연꽃봉오리 형태로 돌출된 장식)가 매우 불룩하게 돌출되어 있다.

또한, 몸체에는 돌을새김으로 새겨진 2개의 연꽃무늬 당좌가 있고 당좌 사이에는 연꽃자리에 앉아 합장하고 있는 2구의 불보살(佛菩薩)상이 장식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비교적 세련되고 표현이 우수한 형상이다.

일반적으로 범종은 구리로 제작되어 동종으로도 불리는데, 시간을 알리거나 공양과 예배 시간을 알리는 중요한 기구이다. 이번 경우처럼 소형 동종은 경주 지역 등에서 몇 건 출토된 적이 있었으나, 전북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발굴조사 과정에서 출토된 것으로 대적골 유적의 다양한 성격을 유추해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나' 구역에서는 제련로 4기, 단야로(鍛冶爐) 2기, 추정 용해로 1기, 석축시설 1기, 퇴적구(퇴기장)가 확인되었으며, 산단부인 동쪽을 제외하고 U자형으로 석축을 쌓아 작업공간을 조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련로는 4기가 중북면 양상이며, 동근 사각형태(말각 장방형)의 상형로로 점토를 이용하여 축조했다. 제련로에서는 배재부와 송풍구 등이 확인됐다. 단야시설과



장수 대적골 제철유적 전경

(사진=문화재청 제공)

추정 용해로는 점토와 석재를 이용하여 축조하였다. 퇴적구(퇴기장)는 길이 35m, 너비 20cm, 깊이 2.5m 내외의 규모로 노벽(爐壁), 노내재(爐內滓), 유출재(流出滓) 등이 쌓여있는 상태로 확인되었다.

'마' 구역에서는 호남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거푸집 생산 가마와 퇴적구가 확인되었다. 그간의 조사를 통해 대적골 유적은 철광석의 채석

부터 주조(鑄造) 또는 단조(鍛造)에 이르는 일체의 제철과정을 볼 수 있는 종합 제철유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굴조사 기관은 장수 대적골 유적의 고고학적 가치를 고려하여 앞으로 유적의 성격 규명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학술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예술인 709명에 6개월간 매월 120만~140만원 지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산하 한국예술인복지재단(대표 정희섭)이 '예술인 파견지원 사업' 예술로(路) 참여 예술인 709명에게 활동비 8억7000만원을 선지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예술인들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예술로 사업은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한 팀을 이뤄 매칭된 기업·기관이 가지고 있는 이슈를 예술인의 시각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사업 참여 예술인들의 활동비는 약 6개월간 월 120만~140만원이다. 매달 활동이 종료되고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후 지급된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활동비 선지급을 결정했다.

지난달부터 활동을 시작한 335명에게 1개월 활동비 4억1000만원 지급이 완료됐다. 6~7월부터 활동을 시작하는 약 374명의 예술인에게도 1개월 활동비 4억6000만원이 선지급된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정희섭 대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활동비를 조기집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뉴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무주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이운애 센터장) 전북 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26일 무주군 무풍면 소재 (주)나디람 교육장에서 무주군 지역 내 여성 예비창업자와 초기창업자 20명을 대상으로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1인 미디어 홍보기법을 활용한 창업아이템을 마케팅하고 상품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28일~27일까지 양일 간 운영될 예정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SNS 온라인 판매 플랫폼 이해 ▲1인 미디어를 활용한 홍보기법 ▲구글 설문 제작 ▲스마트폰을 활용한 SNS 마케팅과 동영상 제작하기 등이다.

이운애 센터장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언택트 소비가 확대됨에 따라 비대면 거래인 온라인 소포물을 활용한 창업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며 "SNS 활용이 필수가 된 시대에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교육 지원을 통한 예비 여성 창업자의 경쟁력 향상으로 창업진입 장벽을 낮추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인 미디어 콘텐츠 제작 교육은 여성가족부와 전라북도 지원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교육이수자에게는 수료증과 함께 2020년 전북 여성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진출기회가 부여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북광역여성새로일하기센터(063-254-3714)로 문의하면 된다. /장은성 기자

코로나19로 연기 '전주 마당극', 이달부터 긴 여정

전주한벽문화관서 상설공연

29일 '변사또 생일잔치'
30일 '용을 쫓는 사냥꾼'

코로나19로 미뤄졌던 '전주 마당극'이 드디어 5월부터 10월까지의 긴 여정을 알리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날 열린 기자회견에는 전주문화재단 김성군 사무국장, 전주한벽문화관 성영근 관장, 전주시 문화정책과 서배원 과장, 한벽문화관 상설공연단 및 사회적기업 합굿마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올해는 민·관이 협력해 매주 두 가지 공연이 열린다. 29일(금요일)에는 전주문화재단 전주한벽문화관(관장 성영근) 주관의 '변사또 생일잔치'가, 30일(토요일)은 사회적 기업 합굿마을(대표 김여명) 주관의 '용을 쫓는 사냥꾼'이 무대에 오른다.

먼저 금요일 공연인 '변사또 생일잔치'는 2018년 초연 당시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레퍼토리 판소리 '춘향가'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해석해 '사랑의 가치에 대한 물음'과 메시지를 현대적인 시각을 통해 풀어내 대중성과 함께 예술성까지 인정받은 작품이다.

2020년 버전의 '변사또 생일잔치'는 극의 긴장감을 더하는 각색과 편곡을 거쳐 더욱 유쾌하고 탄탄한 스토리로 관객과 다시 만날 예정으로 오는 29일(오후 7시 30분) 개막 공연을 시작으로 10월 9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펼쳐진다.

토요일에 만날 수 있는 '사회적기업 합굿마을'의 '용을 쫓는 사냥꾼'은 전북관광문화재단의 '2020 한옥자원활용 아간상설공연' 사업의 선적작이며 '2019 한국관광공사 테마여행 10선 관광콘텐츠'에 선정되기도 한



'변사또 생일잔치' (왼쪽), '용을 쫓는 사냥꾼' (오른쪽) 포스터.



작품이다. 전주 지역에서 구전되는 용에 대한 설화를 '용을 잡아 팔자를 고치려는 사냥꾼들의 황당 모험'으로 재구성한 개성 있는 스토리텔링과 전통민속 탈구방아, 사자탈춤, 기적놀이 등 다양한 전통예술을 적용해 관객과 함께 놀아 보는 흥겨운 한마당을 준비했다. 개막공연은 5월 30일(오후 7시 30분)이며, 10월 10일까지 매주 토요일에 열린다. 두 작품이 펼쳐질 무대는 전주한벽문화관 혼례마당이다. 관람료는 전석 1만5,000원이며 다양한 할인제도를 이용하면 더욱 알뜰하게 공연 관람이 가능하다.

올해는 코로나 19로 인한 좌석 거리두기(2m) 시행으로 관객석을 약 100여 석으로 대폭 줄여 진행한다. 또한 관객의 마스크 필수착용, 방문기록 작성, 비접촉 체온 검

사, 손 소독 등 관객적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방침이다. 또한, 여유 마스크도 구비할 예정이다.

성영근 관장은 "어려운 속에서 조심스럽게 준비한 공연이 드디어 여러분께 선보일 수 있게 됐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열심히 준비한 공연자의 노력을 가까이에서 봐 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 관장은 "전주한벽문화관은 공연자의 기량을 맘껏 표현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면서 "마지막 공연까지 관객과 출연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전주한옥마을의 대표 공연이라는 명성을 이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의: 변사또 생일잔치 063-280-0223
용을 쫓는 사냥꾼 063-236-1577 /장은성 기자



토탈공예지도사 양성

전북새일센터, 결혼이민 여성 대상 일자리 협력망 위원회

(재)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이운애 센터장)는 26일 도내 결혼이민여성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토탈공예지도사 양성' 직업교육 훈련 운영과 관련해 일자리 협력망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전북여성새일센터)를 비롯해 전주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주)르스사람이가 데미, 에어스쿨, 초하루 등 6개 유관기관 및 기업대표가 참석했다.

이날 교육 참여자의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와 직업의식, 공동체 참여와 방과후지도사로 활동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또 참여한 기관기업 간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결혼이민여성들의 취업 및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5일 개강과 함께 100시간 동안 운영 중인 토탈공예지도사 양성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결혼이민여성 20명은 주로 베트남(6명)과 중국(8명), 캄보디아(6명)에서 이주해온 여성으로 연령대는 20대에서 30대가 80%를 차지하고 있다.

이운애 센터장은 "이번 교육은 결혼이민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로 전문가 양성을 통한 관련분야 일자리창출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다"며 "오늘 참여한 유관기관 및 기업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장은성 기자

'이리 오나라 소리하고 놀자'... 전은, JB문화공간서 국악인 박애리 초청 강연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임용택)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 JB문화공간에서 지난 23일 생활 속 인문학 프로그램 중 하나인 '국악인 박애리의 강연'을 실시했다.

이날 강연은 중요무형문화재 제5호 판소리 '춘향가' 이수자이자, 드라마 대장금 OST '오나라'를 부른 국악인 박애리 씨를 초청해 '이리 오나라, 소리하고 놀자'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박씨는 한 시간이 넘는 강연시간 동안 각 지방 민요의 특징과 판소리란 무엇인가, 한국인의 장단 등 참석자들과 함께 소리하며, 판소리

장단과 추임새를 익히고 고수의 장단에 맞춰 '흥부가' 판소리를 직접 선보이는 등 다채로운 구성으로 강연 내내 관객들과 호흡하며 큰 호응을 얻었다.

JB문화공간 회원인 최모씨는 "판소리를 배우며 함께한 90분의 강연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다"며 "이러한 강연을 접할 기회가 없는데 전북은행 덕분에 최고의 공연을 접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전북은행 사회공헌부 김경진 부장은 "도민들이 일상 속에서 유익한 강연을 쉽게 접하며 행복감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하고 수준 높은 강



/김윤상 기자

좌를 마련해 민족도를 높여나가겠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스탠딩코미디의 대부 '전유성의 개그 쇼트코', 뮤지컬감독 박길린의 '뮤지컬 A to Z, 제작부터 공연까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니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JB문화공간은 전북은행이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 설립한 문화예술나눔실천 공간이다. 전북은행 카드회원과 문화공간 회원을 대상으로 공연과 강좌 등 수준 높고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무료로 제공한다. 또한 라운지와 소회의실, 다목적홀, 음악감상실, 루프탑 등의 시설을 무상으로 대관하는 등 다양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카데미는 고창지역에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 외국어 통역안내원 등이 참여하고 있다. 오는 8월까지 고창지역 축제와 마케팅 등 다양한 강의와 현장견학이 진행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관광객 수요가 국내로 눈을 돌리고, 지친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관광여행지로 고창군이 뜨고 있다"며 "해설사들의 상세하고 트렌트에 맞는 안내로 차별화된 지역관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이후 접촉 가능성을 줄이고 소규모로 떠나는 웰니스 여행지로 고창군이 주목받고 있다.

고창군은 선운산, 운곡담사르스지, 고창읍성 팽종죽림 등 천혜의 자연환경 속 명상 힐링 성지로 주목받고 있다. /고창=김영희 기자